

사회

눈물의 오토바이...

‘고흥~광주’ 병수발 7년...병원 가다 교통사고 아내 숨져

당뇨로 앞 못보고 멀미 심해 버스 못 타 참변

당뇨병 합병증으로 앞 못보는 아내가 남편이 모는 오토바이에 타고 병원에 가다 교통사고로 숨졌다. 남편은 버스를 타면 멀미하는 아내의 고생을 덜기 위해 125cc 오토바이에 태워 고흥에서 조선대병원까지 무려 70km를 쉬지 않고 달리던 중 사고를 당했다. 특히 그는 당뇨병 때문에 통원 치료가 불가피한 아내를 위해 7년 동안 매달 한 차례 이 같이 오토바이로 고흥과 병원을 오가는 등 아내에 대한 사랑이 각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2일 오후 6시30분, 김모

(59·고흥군)씨의 오토바이는 고흥을 떠나 화순을 거쳐 광주시 동구 소태동 왕복 6차선 도로로 접어들었다. 목적이인 조선대병원을 제 500m 남쪽둔 동구 소태동 '빛고를 공원' 앞을 지나던 중 좌회전하던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김씨와 그의 아내 문모(53)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오토바이 뒤에 타고 있던 아내 문씨는 뇌를 크게 다쳐 5시간 뒤인 이날 밤 11시30분께 세상을 떠났다. 김씨는 이날 당뇨병을 앓고 있던 아내를 태우고 광주 조선대병원으로

가던 중이었다. 김씨는 아내가 멀미에 시달리지 않도록 오토바이를 천천히 모는 탓에 고흥 집에서 병원까지 이동하는 데 서너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이 때문에 김씨는 매번 진료 전날 여관에서 하루 밤을 머물렀다. 문씨는 10년 전부터 당뇨병에 걸려 병원 치료를 받던 중 3년 전부터는 합병증 때문에 시력을 상실해 시각장애 1급 판정을 받았고, 이후 하루하루를 남편에 의지한 채 지내왔다. 시골 마을에서 벼농사를 짓고 살아오던 김씨 부부의 급습은 옆 마을까지 알려질 정도로 유별나다. 마을 이장 신근식(65)씨는 "아이고 그런 부부 없어, 이날 평생 아픈 아주머니 데리고 그 먼길을 매일 오토

바이로 다니고, 아무리 아주머니가 버스를 타지못한다고 해도 요즘 세상에 그 먼길을 매 때마다 간다는 게 어디 쉽습니까"라며 아쉬워 했다. 아내를 잃은 남편은 벌교의 한 장례식장에 빈소를 마련하고, 30년 이상을 함께한 반려자를 떠나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 큰 아들(32)은 "자식이 생각해도 이렇듯 애뜻한 부부가 있을까 할 정도"라며 "앞이 안 보이는 어머니는 아버지를 위해 손을 더듬거리며 밥상을 차리고, 아버지는 버스를 타지 못하는 어머니를 위해 수년째 그 먼길을 오토바이로 달리고..."라며 말을 잊지 못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연수 광주교대생 사망 사건 러시아 경찰 부실 수사 우려

러시아 연수 중 집단 폭행으로 숨진 광주교대 강도(22)씨 사건에 대한 현지 경찰의 수사가 부실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3일 주이르쿠츠크 총영사관에 따르면 현지 경찰은 이번 사건의 유력 용의자인 러시아 청년 3명을 폭행 치사 혐의로 체포해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범행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에서는 인종혐오 범죄로 기소되면 형량이 가중되고 러시아 내 외국인 안전 문제가 국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지 경찰이 범인들의 신병을 확보한 지 5일이 다 돼가도록 범행동기를 밝혀내지 못하는 등 수사에 미온적인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이날 강씨가 연수 중이던 알타이 국립사범대학에서는 추모식이 열렸다. 강씨의 사신은 가족 및 연수학생과

함께 24일 오후 4시께 빈소가 마련된 광주 무등장례식장으로 운구될 예정이며, 영결식은 25일 광주교대에서 학교장으로 치러진다. 한편 강씨는 출국 전 여행자보험에 든 상태이며 보상은 학교측이 선임한 변호사와 학교, 가족들의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채희정기자 chae@kwangju.co.kr·연합뉴스

순천 편의점 강도 검거
순천경찰은 23일 흥기로 점집방 손님을 쫓던 뒤 인근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을 위협해 돈을 빼앗은 박모(44)씨를 강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이날 새벽 4시50분께 순천시 조례동 모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 조모(19)군에게 흥기를 들이대며 계산대에 있던 현금 19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부취재본부=하태민기자 hagio@



30대 빈집털이범 검거

광주북부경찰은 23일 광주 일대 빈집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쳐온 이모(34)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9일 오후 1시께 광주시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치는 등 2008년부터 7차례에 걸쳐 556만원 상당의 금품을 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전과 16범 불전함 털다 또 경찰서로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집에 있던 불전함에 손을 댄 전과 16범의 60대 남성이 또다시 경찰서행. ○광주남부경찰은 23일 광주시 남구 송하동 S사찰에 들어가 불전함에 있던 돈을 훔친 김모(67)씨를 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 ○경찰에 따르면 절도 등 전과 16범인 김씨는 지난 15일 새벽 12시10분께 이 사찰 대법전 4층에 놓인 목재 불전함의 문을 드라이버로 뚫 뒤 10만원을 가져간 혐의. ○경찰은 절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에 담긴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을 토대로 탐문수사를 벌인 끝에 인근 마을에 사는 김씨를 붙잡았는데, 김씨는 경찰에서 “생활비가 부족해 또다시 못된 짓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 /김형호기자 khh@

‘관리비 안 낸다’ 단전

금남지하상가 옷가게 등 점포 30곳 3시간 상인들 “문화전당 공사로 매출 급감” 반발

관리비를 내지 못한 광주 금남지하상가 일부 점포에 전력 공급이 끊겨 점포 주인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광주 동구 금남지하상가 주민들에 따르면 지하상가 2공구(옛 전남도청 지하) 30개 점포들이 2개월치 관리비를 미납하자 관리업체가 전력 공급을 끊었다는 것이다. 이날 전력 공급이 끊긴 곳은 금남지하상가 만남의 광장 주변 옷가게와 화장품가게, 옷수선가게, 귀금속가게 등 30곳으로,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3시간 단전 됐다. 이들 점포의 체납 관리비는 50만원부터 많게는 100만원에 이른다. 이날 전력공급은 상인들의 거센 항의로 3시간 만에 재개됐다. 금남지하상가 관리사무소는 지난 19일 한전으로부터 점포의 전기요

금 미납에 따른 독촉장과 함께 단전 예고장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19일 상인들에게 2개월 분 관리비를 내지 않을 경우 전력을 끊겠다는 예고장을 발송했다. 그러나 30개 점포 상인들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공사로 2개월여 전에 서석로가 폐쇄되면서, 장동터리나 동구청 방면으로 이동하는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어 매출이 평균 70%이상 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관리비를 내고 싶어도 매출이 없어 체납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 언제까지 점포 운영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항변하고 있다. 특히 국책 사업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보상도 없을 뿐만 아니라 대책도 없는 상황인데 관리업체가 자신들의 입장만을 내

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하상가에 액세서리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홍모(39)씨는 “문화전당을 만든다면서 길을 폐쇄해 매출이 운영비도 안되는 상황에서 정부나 지자체, 관리사무소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면서 “전기까지 끊는 행위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지난 19일 관리비 미납 점포에 22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관리규정에 따라 점포전력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예고장을 보냈다”며 “상인들이 어려운지는 알지만 미납액이 커지면서 한전으로부터 요금 납부 독촉을 받고 있는데다 관리비 체납이 많아 관리사무소 운영도 어려운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전기가 끊겨서...

23일 오전 관리비 체납으로 전기가 끊긴 광주시 동구 금남지하상가. 옷 수선가게 점포들이 촛불을 켜놓은 채 작업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마을버스 인·허가 ‘뒷돈’ 공무원 등 3명 영장

광주서부경찰은 23일 마을버스 인·허가를 받기로 ‘뒷돈’을 받아채킨 광주 모 구청 직원 김모(38·8급)씨 등 3명에 대해 뇌물수수 및 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김씨에게 뇌물을 건넨 브로커 기모(62)씨와 마을버스 운송

업자 정모(48)씨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사재업자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5년 3~6월 기씨 등으로부터 14차례에 걸쳐 1천440만원을 받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증’을 위조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기씨는 운송업자 정씨로부터 4천만원을 받아 이 가운데 1천400여만원을 김씨에게 주고 나머지 2천600여만원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씨는 또 김씨에게 ‘뒷돈’을 건넨 뒤 “뇌물을 받았다”며 김씨를 협박해 1천5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PEET / MEET / DEET 전문학원

[약학대]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MDPass **의학학원** 출신이 아니라면 합격은 어렵다" 이 한마디를 위해....

심화과정 개강 3월 2일 단원별 기술문제 풀이 개강 5월 3일 FINAL 이상문제 풀이 개강 7월 5일	특설1 기초시작반 2개월 완성 2010년 8월 시험 대비를 위한 기초 필수과목 이수(2010년 8월 19일) EPR 관례에 위치한 선·후속반 수강 개강: 3월 2일	특설2 기초영어 2010년 8월 19일 시험 대비를 위한 기초 필수과목 이수(2010년 8월 19일) EPR 관례에 위치한 선·후속반 수강 개강: 3월 8일	검정원 최고와 강사진의 탁월 출강 강의 특별초빙 과목: 일반생물학 (특별초빙강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이남기 교수님을 특별초빙합니다)
---	--	---	--

MDPass **의학학원**

광주 263-5453, 430-2200 전주 255-9119
 mdpass.co.kr (광주 북구청 맞은편)